

구례군 “1조원대 국책사업 양수발전소 반드시 유치”

2035년까지 문척면에 500MW 규모 건립 추진...“6천억원 투입·6천명 일자리 창출”

1조원대 양수발전소 유치를 두고 전국 5개 지자체가 뛰어들어 있는데 구례군이 13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전 국민 설명회’를 열어 유치를 향한 강한 의사를 표명한다.

구례군은 13일과 15일 오전 구례 문화예술회관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구례 양수발전소 유치계획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 첫날에는 구례군과 한국중부발전이 양수발전소 유치 추진 경과와 계획을 설명하고, 지역민들의 물음에 답했다.

구례군은 내년부터 오는 2035년까지 10여 년에 걸쳐 문척면 일원에 500MW 규모 양수발전소 건립을 추진한다. 건립 준비에는 3년, 공사 기간은 7년여 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부담 규모는 높이는 72m·길이 281m로, 저수 용량은 540만t이다. 지난 2001년 준공한 경남 산청 양수 댐(700MW)보다 저수 용량이 200만t 적다.

구례군은 올해 4월부터 시행사를 맡을 한국중부발전과 실무 협의를 이어갔다.

5월에는 구례군과 구례군의회에서 제안 보고회

를 열었고, 다른 지역의 양수발전소를 찾아가 유치 사례를 살폈다. 구례군과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5월과 6월에 구례군의회, 전남도와 각각 양수발전소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후 지난 7월 문척면 금정리(상부지)와 중산리(하부지) 일대를 발전소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문척면 마을 대표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와 양수발전소 견학을 진행했다.

발전소 건립 예정지 주변 5개 마을 주민들은 7월 말에서 지난달 초까지 주민 설명회를 통해 발전소 건립 계획을 듣고, 문척면과 7개 읍·면 주민들은 지난 12일까지 다른 양수발전소를 견학했다.

지난달 말에는 110명으로 구성된 ‘문척면 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위원장 정만수)가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유치 활동에 들어갔다.

유치위원회 측은 “호남권이 전국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46%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남에는 양수발전소가 한 곳도 없다”며 “구례 건립 예정지는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2차 민원이 없다는 점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구례군이 양수발전소 유치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1조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기는 경제효과 때문이다.

발전소가 건립되면 사업비의 70% 이상(부지매입비 제외)인 6000억원의 자금이 지역으로 유입될 것으로 구례군 측은 내다봤다.

또 100여 명의 상주 인력 등 6000명에 달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양수발전소를 건립한 경북 예천군은 최근 3년간 연간 14억원의 세금을 더 걷었다.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는 ‘5과전’ 양상이다. 한국중부발전은 구례·경북 봉화, 한국수력원자력은 경북 영양·경남 합천, 한국동서발전은 곡성과 양수발전소 신규 건립을 검토·추진하고 있다. 양수발전은 전력수요가 낮은 시간에 하부담의 물을 상부담으로 퍼 올려 저장한 뒤, 전력수요가 많은 시간에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

구례군과 한국중부발전은 주민 설명회와 사업자의 의향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의향서를 내고, 산업부는 11월께 건설 부지를 선



구례군이 13일 오전 구례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구례 양수발전소 유치계획 설명회’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정한다.

박영주 문척면 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사무국장(중산리 이장)은 “하부담이 들어서는 중산리는 전체 88세대, 141명을 대상으로 건립 동의를 90% 가까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수몰이 예상되는 8세대

도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라며 “발전소 예정 부지는 2차선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이 태부족한 낙후된 지역으로 잡히기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양수발전소 유치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순천시가 지난 12일 상사면 흘산리 일원에서 다회용기 세척 사업장인 ‘에코워싱’ 개소식을 열고 자활사업 시작을 알리고 있다. <순천시 제공>

“지구 살리고 취약계층 일자리 만들고...” 순천시, 다회용기 세척 ‘에코워싱’ 개소

상사면 흘산리 일원에...자활근로자 16명 참여

순천시가 다회용기를 씻어주는 ‘에코워싱’ 사업장을 문 열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순천시는 지난 12일 상사면 흘산리 일원에서 다회용기 세척 사업장인 ‘에코워싱’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를 포함한 28개 전남 사군 지역자활센터장들이 참석했다.

다회용기 세척 사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 자활을 돕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다회용기 세척 전용 사업장은 전남에서는 처음 문을 열었다.

상사면 흘산리에 있는 사업장은 빈 상가를 새로 단장해 마련했다.

약 80평(264.12㎡) 규모로, 불림 세척과 초음파 세척, 고온고압 세척, 살균 소독, 세균 오염도(ATP) 검사, 진공 포장 등 모든 위생 과정이 이뤄진다.

이 사업장에서는 다회용기를 수거해 세척, 살균·소독, 건조해 다시 배송하는 작업을 한다.

일회용품 사용이 잦은 도시락 배달업체와 급식업체, 축제·행사장 등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순천시는 내다봤다.

이 작업에는 순천지역자활센터 소속 자활근로자 16명이 참여해 매출액에 따라 참여자 추가 수당(인센티브)을 받을 예정이다.

순천지역자활센터에는 17개의 사업단이 활동하고 있다.

탁중수 순천시 시민복지국장은 “조금 불편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일회용품을 줄여 나가는 데 함께 해주길 당부한다”며 “이번 사업장 개소를 계기로 자활사업을 활성화해 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와 창업으로 이어져 참여자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순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고흥 농수산물 수출개척단, 중국 시장 공략 나서

웨이하이·원저우서 구매자 면담 고흥 유자·김·석류 시식행사 등 다양한 홍보 프로모션 진행도

고흥군이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고흥군은 공영민 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고흥군 농수산물 중국 시장 수출개척단’ 출범식을 갖고 중국 방문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고흥군 농수산물 중국 시장 수출개척단’은 작년 11월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김밥 포럼에서 공군수가 선포한 ‘고흥 음식 세계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방문단은 중국 웨이하이와 원저우 등 2개 도시에서 현지 구매자와 면담과 다양한 홍보 프로모션을 통해 고흥 농수산물을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 웨이하이에서는 고흥 명품 김의 안정적인 해외 판로구축을 위해 중국 산동성의 대형 수출업



고흥 농수산물 수출개척단이 지난 12일 고흥군 청사 앞에서 출범식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체 구매자와 면담하는 등 구체적인 수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중국 원저우시에서는 구매자와 원저우시 어우하이구청장 면담과 ‘고흥의 날’을 개최해 고흥 유자, 석류, 김 등 시식 행사 등을 추진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흥 농수산물 시장개척단

은 고흥산 김과 유자 등 식재료의 우수성을 중국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고흥 농수산물의 세계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프랑스, 일본, 동남아시아 등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여수 낭도 멸종위기종 ‘흰발 농게’ 이사

항구 공사 앞두고 화정면 낭도리 349-3 앞 해상으로

여주시 낭도항 인근 갯벌에 사는 흰발 농게(해양보호생물·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사지)가 대체서식지 찾아 옮겨진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13일 여주시 화정면 낭도리에 위치한 낭도항에서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및 해양보호생물에 해당하는 흰발농게를 포획해 대체서식지로 이주한다고 밝혔다.

여수해수청에 따르면 올해 착공 예정인 ‘낭도항 정비공사’를 앞두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 야생생물의 이주를 추진키로 했다. ‘낭도항 정비공사’ 착공 전 흰발농게의 포획 및 이주 실시에 관한 협의내용을 이행하는 사항이다.

앞서 흰발농게의 대체서식지 선정을 위해 총 3곳의 후보지를 물색해 멸종위기야생생물(흰발농게)의 유무, 고도 및 노출시간, 분포 면적 및 출현 밀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후보지 중 흰발농게 서식지로 가



장 적합한 ‘여주시 화정면 낭도리 349-3’ 앞 해상이 최종 대체서식지로 선정됐다.

변민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장은 “어항 개발에 따른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해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의 대체서식지 이주 후, 이주 결과 평가 및 추가 대책 수립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이주부터 사업 완료 후 5년까지 흰발농게 대체서식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주시 앱 ‘여수엔’ 무료등록 음식점 모집

27일까지 일반·휴게 음식점

여수시가 지역 관광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바일 앱 ‘여수엔’을 내놓고 등록 음식점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여수엔’은 여수의 관광지, 숙소, 음식점, 편의시설, 교통안내 등의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다. 모바일 예약과 비대면 현장 주문, 간편 결제도 할 수 있다.

여수시는 ‘여수엔’에 무료로 등록할 ‘스마트음식점’을 모집하고 있다.

스마트음식점으로 등록하면 관광객이 더 쉽게 음식점 정보를 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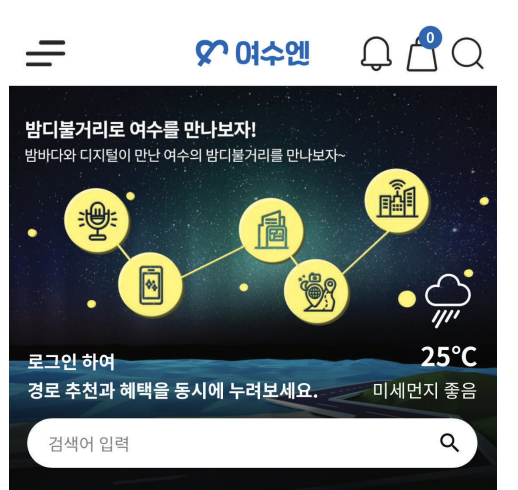
여수지역에 일반·휴게 음식점 영업신고증을 가진 업체라면 등록할 수 있다.

오는 27일까지 여주시 관광과를 찾아가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여수시는 ‘여수엔’을 통해 다양한 행사를 열어 음식점 홍보 효과를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꾀한다. 여수시는 등록 음식점에 ‘스마트음식점 시범업소’ 비문(접촉 장치)과 명패를 설치해주고, 관리비용 태블릿PC를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나 통합 앱 운영팀(061-659-3886), 관광과 통합 앱 담당자(061-659-399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스마트음식점 등록은 소상공



관심메뉴

여행추천, 음식점, 숙소, 관광지

여수 관광정보 통합 앱 ‘여수엔’ 화면. <여수시 제공>

공인의 디지털 전환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역 내 많은 업체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곡성군 ‘일자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

곡성군은 지난 11일 ‘일자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곡성군은 지난 3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연구 방향을 설정한 뒤 6월부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작성 보고서 이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왔다.

곡성군은 중간 보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최종보고회까지 선도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관련 부서와 기관들이 협조할 것”이라며 “사업별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해 지역 경제발전을 견인할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재동 기자 pjdt@